

도서관 · 정보학 그리고 기록학*

The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최 정 태 (Jung-Tai Choe)**

초 록

문헌정보학은 도서관학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서구의 전통있는 명문대학은 학과 명칭을 '도서관학, 기록학 그리고 정보과학'으로 부르며,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정보관의 자료와 지식정보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기본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이를 환기 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정보학, 기록학(기록관리학), 도서관 · 정보학

Abstract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riginated from the 'Library Science'. A school of academic reputation of the West is calling names of studies by the name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and studying materials,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centers. I think that many of the researcher neglect basic studie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refore, I'd like to call attention to the fact.

Key Words : Library Science, Information Science, Archival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부산대학교 본관 ; 2004년 6월 11일)에서 발표한 기초강연내용입니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tchoe@pusan.ac.kr)

· 접수일 : 2004. 5. 25 · 최초심사일 : 2004. 6. 11 · 최종심사일 : 2004. 6. 11

I

서울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어느 교수가 캐나다의 명문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UBC)을 방문하면서 이 대학에 설치된 〈School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를 〈도서관, 기록, 정보과학대학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¹⁾

그는 아마도 이곳에서는 도서관학과 기록학을 가르치고 정보과학을 연구하는 일종의 멀티버시티(multiversity) 또는 하이브리드(hybrid)학과인 줄 짐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도서관학과 기록학, 그리고 정보과학이 편의상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번역어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석학이라도 문헌정보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문의 명칭을 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대학은 위의 대학이외에도 영국의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호주의 사우스 웨일즈대학(University of South Wales) 그리고 한국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제는 결국 ‘문헌정보학’을 얘기하려는 것이지만 위 대학들이 쓰는 명칭의 일부를 도치(invert)시켜 ‘도서관·정보학 그리고 기록학’으로 타이틀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세 주제가 한 곳에 담겨있는 위의 제목을 남이 보면 분명히 이질적이고 독립된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어 알아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항상 대하는 단어들이고 또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얹혀 공존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지금 우리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128년 전통을 가진 DDC(1st edition, 1876)는 분류학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최상의 텍스트입니다. 이 분류표에서 지시하는 ‘020’은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보면 문헌정보학이 강단과 현장에서 연구하고 이용하는 매체는 도서관 만 아니라 인쇄 및 필기된 기록물, 시청각자료, 기계가독자료 등 모든 정보자료를 포괄하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 조직, 유통, 이용의 활용을 돕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아카이브스와 그 기술에 있어서도 같은 조건으로 분류하라”²⁾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조건과 전개원리는 목(section)부분, 즉 ‘021’, ‘025’, ‘026’, ‘027’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

1) 김기석, “아키비스트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학연구, 창간호(2000, 4), p.96 / 이와 같은 誤譯 사례는 교육학자, 역사학자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연구논문에서도 흔히 보인다.

2) 020 : The Science and art utilized in the identification, collection, organization, dissemination, and use of books, other printed and written records, audio-visual and machine-readable materials, information. Class here archives and archival techniques.

해서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정보관(Information Center)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사명을 띠고 있는 기관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명칭도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로 호칭하면서 한 건물 속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텍사스주립기록관 또한 <Texas State Library and Archives>로 불러 도서관과 공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어떤 일인지 연구대상물에서 도서관과 정보관을 말하면서 기록관³⁾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본체에서도 도서관학과 정보학은 존재하지만, 기록학⁴⁾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학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학과 정보학도 사실은 문헌정보학으로 변용되어 그 실체를 해석하는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무대에는 도서관학이 없고, 도서관·정보학⁵⁾이 없으며, 기록학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혹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II

문헌정보학이 1957년 이 땅에 설립된 후 반세기를 지내오는 동안, 저는 30여 년간 우리 학문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가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근원적인 정체성(identity)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서서 공부하던 학문은 ‘도서관학’이었습니다. 이 도서관학은 사회

3) 법령에서는 통칭 ‘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하지만, 사학, 서지학계 등에서는 흔히 ‘문서관’이라 칭한다. 같은 개념의 국가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료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법규와 실제상에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 용어를 화자의 취향에 따라 ‘기록(물)관리소’ ‘기록(물)보존소’ ‘기록관리보존소’ ‘기록보존관리소’ ‘문서관리소’ ‘문서보존소’ 등으로 몇대로 부르고 있어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4) 전국의 10여개 대학원협동과정에 ‘기록학’이 아닌 ‘기록관리학’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몇 개 대학은 학과 단독으로 대학원과정에, 또 어떤 대학은 학부과정에 설치한 곳도 있다. 협동과정에서는 대부분 사학과가 주관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과가 주관하는 곳은 한 두 곳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식명칭을 ‘기록학’(Archival Education 또는 Archival Science)이라하며, 학위도 ‘MAS’(Master of Archival Studies Degree)로 표기한다. 한편, 20세기 초 미국에서 발전한 학문으로 현용기록(current records)에 대한 기록관리 전문가(record managers) 양성을 위해 ‘기록관리학(Record Management)’ 교육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5) ‘도서관·정보학’과 ‘문헌정보학’은 영어명칭을 같이 쓰고 있지만 그 개념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발전과 더불어 지식정보의 확산 그리고 기록매체 변화에 따라 ‘정보학’과 융합하여 ‘문헌정보학’을 탄생시켰습니다.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결합할 때 자의(字意)대로라면 ‘도서관정보학’이라고 하든지, ‘도서관·정보학’이라 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문헌정보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의 근원이 모두 도서관에서 출발하고, 도서매체로부터 시작했음에도 굳이 ‘도서’를 기피하는 현상⁶⁾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술단체마저도 ‘도서’나 ‘도서관’을 외면하고,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학문의 영역까지 나누어 문헌정보학회, 정보관리학회, 도서관·정보학회, 서지학회, 비블리아학회, 기록관리학회 등으로 달리 부르고 있으며 그 활동도 제 각기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정보학회’⁷⁾가 있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도서관 명칭’⁸⁾을 모두 점유하지 못하고 절반의 지분만 확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도서관’을 다시 들추어내어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본질과 정체성문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학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사회와 학계 일각에서 부각되고 있는 ‘기록(물)’⁹⁾과 ‘기록관’¹⁰⁾ 그리고 최근에

-
- 6) 이러한 기피현상은 문헌정보학과 교재에서도 술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교재의 내용 전부가 ‘도서분류’에 한정되면서도, 책 제명(title)은 ‘문헌분류’, ‘자료분류’, ‘정보자료분류’라고 하고 있다.
- 7) 이 땅에 ‘도서관·정보학회’가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대학에서 ‘도서관학’이 이미 사라져 (유일하게 단 한곳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여기서 출발한 학회마저 모두 ‘도서관’을 버리고, ‘도서’까지도 Biblia(그리스어)로 변용하면서 피하려 하는데 아직도 학계 한 구석에서 ‘도서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학회가 있다는 사실은 어찌면 신기하기도 하다.
- 8) 도서관이 인류문화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라는 것이 5천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와 학계 그리고 우리자신에게는 ‘도서관’이라는 이미지가 긍정적 시각보다 부정적 시각이 잠재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 때 식민통치의 도구로 등장한 도서관명칭이 갖는 관념상의 편견일 수 있고, 아니면 그 동안 도서관이 우리에게 보여 온 실망스런 활동과 낮은 봉사의 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도서관 현상이 변하고 있고, ‘대통령도서관’이 생길 정도로 도서관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진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서관이 생활화되어 있고, 어린이를 위한 ‘Library Song’ 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족이지만, 본인이 최근에 입수한 *The Most Beautiful Libraries in the World* (New York ; Paris : Harry N. Abrams, 2003)를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었는가 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만다.
- 9) 기록은 영어로 records와 archives로 구분된다. 전자는 법률적 임무수행과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 단체가 생산 또는 수집하여 관리, 유지하고 있는 자료(document; item; official record)를 말하고, (*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 Managers*, SAA, 1992, p.28) 후자는 업무수행에서 생산, 수집된 레코드가 ‘기록의 일생(life cycle of record)’에 따라 이용된 후 보존 가치가 존속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그 차이점은 ‘보존가치’에 기준을 두고 그 가치여부에 따라 구분이 결정된다. (최경태, *記錄學概論*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1), p.25.)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카이브스를 고문서, 사료(史料)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 10) 기록관 역시 record center와 archives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현용기록물(current records)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후자는 보존기록물(archives)을 관리, 보존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archives

설치된 ‘기록관리학’¹¹⁾을 비교하면서 문헌정보학이 나아갈 바른길을 모색해 보는데 있습니다.

2000년 1학기 목포대학에서 설치하기 시작한 ‘기록관리학과’는 지금(2004년) 전국 12개 대학의 대학원과정에서 문헌정보학과와 역사학과가, 역사학과와 행정학과 그리고 교육학과 등이 협동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잇따라 학위논문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아 짧은 시일임에도 그 세력은 증가일로에 있고 잠재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학문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번창 하는 이유는, 1999년에 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기록법’으로 약칭)과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록법’과 그 ‘시행령’ 중에서 학과 설립과 관련되는 항목을 보면, 앞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기록물을 통괄해서 관리하고 현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기록원>(대통령령 제18392호, 2004. 5. 24)으로 재편성하고, 지방마다 ‘자료관’을 두며, 국가기록원과 지방자료관에는 적정수의 ‘기록전문가’(archivist)를 두도록¹²⁾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제정과 함께 정부의 선도적 조치는 건국 이후 초유의 일로서, 비견하자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도서관이 지탱하는 것처럼, ‘학교도서관법’이 제정되어야 학교도서관이 융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12개의 기록관리학과 설치와 더불어 관련 학술단체로서 ‘기록관리학회’와 ‘기록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전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일부 서지학과 문서관경

는 library의 관련개념(RT, Related Term)으로, 애초부터 그 자료는 같은 울타리 속에서 시작했다. (“Originally archival and library materials were preserved in the same plac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1. ‘ARCHIVES’, p.515.)

- 11) 기록관리(archival management)란 보존기록물(archives), 보존문서(manuscript repository) 등 전반적인 기록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감독 또는 관리하는 것이며, 그 기능에는 기록의 평가(appraisal), 배열(disposition), 수집(aquisition), 분류(arrangement) 및 목록기술(description), 참고봉사(reference service), 전시홍보(outreach), 보존(preservation) 그리고 기타 이용자 봉사(user services) 등이 포함된다(*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 Managers*, pp.2-3.) 한편, 기록보존(preservation)이란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작업 그리고 이미 훼손되어 상태가 나빠진 기록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을 말한다.(*Ibid.*, pp.26-27.) 요약하면, ‘기록관리학’은 글자 그대로 기록관리에 중점을 둔 학문인데 반해, ‘기록보존학’은 기록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 12) ‘기록법’(제25조):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시행령’(제40조, 자격과 배치):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 중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영, 정부간행물을 담당하는 극소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신진그룹이 대거 참여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학회는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하여 성격 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내용과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테면, 기록관리학회는 기록물의 처리 이용과 관련된 방법론과 기록물의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 기록물의 분류(arranging), 기술(describing), 검색, 유지, 봉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역사학자가 주로 참여하는 기록학회는 기록물의 생산 보존과 관련된 관리조직과 사회체계의 변천사 그리고 원본(manuscript 등)해석과 평가(appraising) 및 감정 등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학회의 일차적 마케팅 대상은 정부가 법으로 공시한, 즉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기록물(official records, government documents)과 ‘기록물 관리기관’을 비롯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자료관’ 등에서 생산, 수집하는 현행기록물(current records)과 보존기록물(archives)에 대한 운영과 관리(administration, management) 그리고 보존(conservation, preservation)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 영역으로 집약한다면, 곧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인 것 입니다.

기록물 관리·보존제도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문적으로 정착되어 있고, 아카이브스와 레코드센터가 기록전문가(Archivist 또는 Manuscript Curators 또는 Record Managers)¹³⁾들에 의해 건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나 관리시스템이 매우 부실하여 전문가에 대한 위치와 법적자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는 ‘기록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¹⁴⁾ 이것도 각자 이해관계에 얽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위에서 제시된 두 학회를 종합하여 그 활동과 학문의 대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헌정보학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다루고 있는 대상물은 이름만 ‘도서’에서 ‘기록’으로 바뀐 것 뿐 이지 모두 ‘지식정보매체’에 관한 것이어서, 자료의 특질을 비롯해서 처리와 운용, 보존방법이 거의 같으며, 그들 전문가의 외연적 활동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자료(library materials)와 기록관자료(archival materials)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 한쪽 가지(枝)는 취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 가지는 놓치

13) 이들의 직업적 전문성은 ‘아키비스트’, ‘문서(필사본)전문가’, ‘기록(현행기록)관리관’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 Managers*, SAA, 1992) ‘사서’의 직업이 단일성 전문직(unity profession)이라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 만큼 연구영역이 넓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14) 기록학계 초청 간담회 회의자료,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제정방안 기록물관리전문요원제도 추진방향(정부기록보존소, 2004. 4. 7).

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놓치고 있는 그 한쪽 가지를 문헌정보학이 아닌 다른 분야가 쥐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은 나머지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III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폭발적인 지식정보의 생산과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 묻혀 있지만 막상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을 실감하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정보의 행행과 천박한 대중문화의 범람 그리고 저질스런 영상매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건전한 독서활동을 통하여 치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문맹(文盲)이 문제시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또다시 책맹(冊盲, aliterate)¹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Cicero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책이 없는 방은 몸에 정신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¹⁶⁾ 책을 읽으므로 인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고력을 증대시키며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신지식인은 자기개발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율적인 자기교육을 통해 교양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등장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활동은 도서관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로서, 최근에 크게 달라진 도서관의 봉사활동과 더불어 ‘독서교육’, ‘독서운동’이 한창 진작되고 있음¹⁷⁾으로 보아 이것은 종전의 도서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서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법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이념에 따라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제2조)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도모하는데 그

15) 글을 읽을 수 있으나 책을 읽지 않고 TV 또는 Video 등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

16)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Cicero- AMAZON.COM> ‘아마존이 선전하는 스티커가 내방 책상 앞에 붙어있어 늘 보고 있다.

17) 필자가 며칠 전 울산의 한 도서관을 탐방했을 때, 사서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독서활동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1층 자료실 한 코너에는 ‘독서치료’에 관한 자료를 집성하여 봉사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

역할과 사명은 공공도서관이 제1차적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999년 8월 전문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2000년 7월부터 전국16광역시도에 지역평생교육 대표기관을 설치하고 2006년 까지 26기관을 5년 동안 공공도서관과 대학의 평생교육원, 초·중·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시설 기타 사회교육기관들을 선정하여 평생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평생교육 중심운동에는 대학부설기관과 또 다른 교육기관이 주체가 되어 있고 도서관은 단지 6개 관(28%)밖에 되지 않습니다¹⁸⁾ 그만큼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서관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변화의 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서관을 토대로 성립된 문헌정보학은 이러한 현장을 외면할 뿐 만 아니라 실정을 기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헌정보학이 도서관의 이념과 기능을 감지한다면 ‘평생교육’과 ‘독서활동’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교육개혁과 더불어 어린이 조기교육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함께 ‘어린이독서교육’은 사회의 가장 인기 있는 과목으로 부상하여 언론기관, 사회교육센터 등에 설치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문헌정보학이 놓치므로 인해, 제2의, 제3의 학문세계가 이를 노리고 있고, 사실 그러한 새로운 마케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모르나, 지금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학과의 교과과정에는 없지만, 같은 대학 내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몇 해 전부터 ‘어린이 독서지도사’ 과정을 개설하였고, 또 금년부터 ‘독서치료(bibliotherapy)’과정을 개설하여 두 강좌 모두 상당한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정근 교수팀이 ‘독서치료’에 관한 단행본 시리즈를 간행하는 등 문헌정보학의 제자리 찾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문헌정보학이 이제 기본(basic)으로 돌아가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을 낸다면, 문헌정보학은 이론만을 고집하는 순수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기초로 하는 실용과학입니다. 실용과학은 현장이 필요로 하고 동시에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이를 연결하는 가교(bridge)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의 방법은 추상적인 이론보다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교육이어야 하며 그 방법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8) 한복희,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운영과 활성화 방안(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23.

IV

1999년 1월에 공포된 ‘기록법’은 정부수립 반세기만에 새로운 현장과 직업을 만드는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역사, 행정, 교육학계 그리고 또 다른 학계에서는 새로 전개될 개척지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10개의 역사학과가 ‘기록관리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보아도 그들의 기대심리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주인이 없는 학문에서 인문사회과학 출신의 인재들의 사회적 진로가 넓지 않음을 생각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우리에게서는 활동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개척할 미래의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옆에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버리고 기록관을 버리면서 실체가 없는 ‘정보’에 몰두하다보니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를 놓는 것은 곧 ‘독서’를 버리는 것이고, 독서를 버리는 것은 ‘도서관’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도서관을 찾아야 하고 독서를 개발해서 ‘독서운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독서에서 길이 있으면 ‘독서치료’에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또한 문헌정보학이 맡아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문헌정보학 공부하면서도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 면적의 800분의 1이고, 세계 인구의 80분의 1에 해당되는 별 볼일 없는 우리나라가 바로 기록문화의 중주국 내지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기록관리학협동과정에서 학위논문 하나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세계에 내어놓을 만한 기록유산(archival heritage) 열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증빙해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프랑스 라스꼬 동굴벽화와 비견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 벽화(국보 제147호), 둘째,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多羅尼經)’, 셋째,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聖書)’ 보다 70년 앞서 인출한 세계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直指)’, 넷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다섯 및 여섯째, 세계기록문화유산(MOW; Memory of the World)인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일곱째, 라이샤워(E. Reishauer)교수가 극찬한 한국인의 ‘족보(族譜)’, 여덟째, 전 근대적 관보(官報)인 ‘조보(朝報)’, 아홉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열째, 한지(韓紙)와 고서(古書) 등입니다. 그밖에 이두

(吏讀), 광개토대왕비, 진흥왕순수비, 집현전, 성균관 등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찾지 못한 것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의 440여 문화유적 중 한국의 기록자료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모두 세계 정상급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록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모두는 우리의 자랑이면서 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지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문헌정보학이 가장 책임자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는 일을 ‘도서관·정보학 그리고 기록학’의 본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